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박성준*

〈요약〉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OECD 22개국에 유연안정화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노사정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노동 정책으로서 앵글로 색슨계의 고유연-저안정화 정책 및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정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성과 즉 고용율 제고, 실업률 감소 그리고 빈곤률의 감소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2005년 유럽커미션(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으로 채택하였듯이¹⁾ 노동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은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에서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psj@keri.org

1) 유럽 커미션이 2005년 7월 채택한 「2005-2008년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21조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란 용어는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용어로서 기업에게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을 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사회 안정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과거 유연성과 안정성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든지(영미형 노동시장) 고용보호는 잘 되어 있지만 노동시장은 경직적(대륙 유럽형 노동시장)인 것으로 양분되어 있어 노동시장 정책으로 영미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대륙 유럽형을 채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길 밖에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덴마크 및 네덜란드가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자 이들 국가의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주목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기업에게는 해고와 채용(외부적 수량)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급속한 고용창출, 실업률 급감, 빈곤율 저하 등의 노동시장에서는 괄목한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외부적 수량(해고-채용)유연성 대신 내부적 수량(근로시간의 조정)유연성을 추구하는 한편 덴마크와 같은 안정성을 채택하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어²⁾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³⁾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여 이 모델이 보편화 될 수 있을 만큼 타 국가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가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수성과 유연안정성 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내재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단지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구해서 성과를 얻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가 중요한 점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은 일부 유럽국가에 국한되어 유용될 뿐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 유연안정성 정책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각국의 노사정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기존의 영미형 또는 대륙유럽형 노동시장 전략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네덜란드 및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분할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promote flexibility with employment security and reduce labor market segmentation, having due regard to the role of the social partners'

2)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정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2008)'의 3장에 언급되어 있음.

3) 이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ILO에서는 '세계고용의제'로 채택하고 있음.

II. 기존 문헌 조사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주로 2000년대에 들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의 유연안정화 전략으로 성공한 국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대한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사례연구로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⁵⁾은 유연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 예를 들면 고용보호법제(EPL) 수준 등과 안정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 등을 이용하여 유연안정화 정책의 유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의 노동시장 정책은 양면성이 있어 사전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정책이 유연성과 관련이 있고 어떤 정책이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Wilthagen and Tros(2004)가 제시하고 Keller and Seifert(2004)가 이용한 Wilthagen의 유연안정성 matrix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는 (내부 수량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직무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고용보호법제(EPL)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수량적 유연성은 저하되지만 직무안정성은 향상되고 여기에 훈련 및 평생학습이 제공되면 내부 수량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도 향상된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들을 이용하여 유연안정화 정책을 평가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PA)을 통하여 유연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로 전환하여 이들 지수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추정

1. 기초통계

4) 박성준·변양규·정현용(2008), 정원호(2005 a,b), 장희정(2007 a,b, 2008), 황수경(2006), 윤진호(2009)

5) Nickell(1997), Heckman and pages(2000), OECD(2004), Amable, B(2003), Bradley and Stephens(2007), 김형기(2009)

본 연구는 유연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노동시장 정책 변수(이하 변수)로 <표 1>의 변수들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정책 변수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OECD 30개 국가 중에서 <표 1>에서 제시된 정책 변수들이 모두 가용한 국가가 없어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정책변수의 수와 국가의 수 사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표 1> Wilthagen의 유연안정성 Matrix

안정성 유연성	직무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복합안정성
외부 수량적 유연성	- 고용계약 형태 - 고용보호법제 - 조기퇴직	- 고용 서비스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 훈련/평생학습	- 실업보험 - 기타 사회보장 - 최저임금	- 휴가기간 증 해 고 금지조항
내부 수량적 유연성	- 근로시간 단축 - 파트타임 계약	- 고용보호법제 - 훈련/평생학습	- 파트타임 보조혜택 - 연구장학금 - 질병 혜택	- 다양한 휴가계획
기능적 유연성	- 직무 다변화 - 훈련 - 노동임대	- 훈련/평생학습 - 근무순환 - 팀워크 - 다기술화	- 성과급 임금체계	- 자발적 근로시간 조정
임금유연성	- 노동비용 조정 - 사회보장보험 삭감	- 사회보장보험 변경 - 고용보조금 - 고용 시 혜택	- 단체임금협상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회보장 혜택 조정	- 자발적 근로시간 조정

자료 : Wilthagen and Tros(2004) 및 한국국제노동재단(2007)

우선 유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정책 변수 중 하나인 고용보호법제(EPL)지수가 가용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제외한다. 또한 다른 정책 변수들의 장기시계열이 가용하지 않은 일부 동구권 국가들과 멕시코, 터키 등도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다.

그리고 <표 1>에 있는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 모두를 OECD 22개국에서 동일하게 찾는 것도 무리가 있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표 1>에 있는 정책 변수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표 1>의 정책 변수들 중에서 OECD 22개국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변수들을 추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고용보호법제(EPL)지수 세 가지를 포함한 총 8개 정책변수로 제한된다. 이들 총 8개의 정책 변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PL 지수 중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관련 지수, 총고용 중 파트타임비중 및 장기실업자 비중, GDP대비 ALMP비중,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그리고 실업보험

의 초기 소득보상률(initial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 등으로 이들 정책 변수의 OECD 22개국, 1998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7년 4년치이다.

〈표 2〉 유연안정성 추정에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명 나라명	정규직 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임시직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집단해고 에 관한 고용보호 법제지수	총고용 중 파트타임 비중(%)	총고용 중장기 실업자 비중(%)	GDP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GDP에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	실업보험의 초기소득 보장률(%)
호주	1.48 (5)	0.88 (5)	2.88 (8)	24.80 (3)	21.05 (16)	0.36 (17)	0.70 (16)	75.25 (12)
오스트리아	2.51 (18)	1.50 (11)	3.25 (15)	14.55 (13)	26.73 (12)	0.60 (13)	1.39 (8)	74.50 (13)
벨기에	1.72 (9)	2.63 (17)	4.13 (21)	17.60 (11)	52.40 (4)	1.24 (4)	2.32 (2)	72.75 (14)
캐나다	1.25 (4)	0.25 (1)	2.63 (6)	18.55 (10)	10.23 (20)	0.37 (16)	0.73 (14)	77.50 (9)
덴마크	1.63 (8)	1.38 (9)	3.69 (17)	17.03 (12)	22.73 (15)	1.59 (1)	2.36 (1)	91.50 (1)
핀란드	2.21 (12)	1.88 (15)	2.63 (6)	10.98 (18)	25.03 (14)	0.95 (7)	1.99 (4)	85.50 (4)
프랑스	2.44 (16)	3.63 (22)	2.13 (4)	13.60 (15)	41.75 (6)	1.00 (5)	1.52 (6)	82.00 (7)
독일	2.84 (19)	1.50 (11)	3.75 (18)	20.05 (7)	53.33 (3)	1.00 (6)	2.13 (3)	78.25 (8)
그리스	2.31 (14)	3.54 (21)	3.25 (15)	7.15 (22)	53.80 (2)	0.13 (21)	0.40 (19)	61.75 (19)
아일랜드	1.60 (6)	0.54 (4)	2.38 (5)	19.20 (9)	36.80 (9)	0.76 (8)	1.03 (11)	70.25 (15)
이탈리아	1.77 (10)	2.32 (16)	4.88 (22)	13.23 (16)	54.98 (1)	0.56 (14)	0.73 (14)	58.00 (20)
일본	1.87 (11)	1.10 (7)	1.50 (2)	19.75 (8)	29.78 (11)	0.25 (19)	0.43 (18)	67.50 (16)
한국	2.37 (15)	1.69 (14)	1.88 (3)	8.08 (21)	0.88 (22)	0.11 (22)	0.18 (22)	54.00 (21)
네덜란드	3.02 (21)	1.49 (10)	3.00 (13)	34.10 (1)	39.73 (7)	1.37 (3)	1.93 (5)	86.50 (3)
뉴질랜드	1.61 (7)	1.03 (6)	0.38 (1)	22.18 (5)	11.98 (18)	0.43 (15)	0.75 (13)	62.50 (18)
노르웨이	2.25 (12)	3.01 (19)	2.88 (8)	20.75 (6)	8.25 (21)	0.72 (10)	0.64 (17)	76.00 (11)
포르투갈	4.25 (22)	2.88 (18)	2.88 (8)	9.95 (19)	43.35 (5)	0.61 (12)	1.11 (10)	83.00 (6)
스페인	2.50 (17)	3.44 (20)	3.13 (14)	9.48 (20)	38.58 (8)	0.71 (11)	1.49 (7)	76.25 (10)
스웨덴	2.86 (20)	1.63 (13)	3.75 (18)	13.88 (14)	19.98 (17)	1.53 (2)	1.20 (9)	88.25 (2)
스위스	1.16 (3)	1.13 (8)	3.88 (20)	24.95 (2)	35.18 (10)	0.73 (9)	0.90 (12)	85.50 (4)
영국	1.08 (2)	0.35 (3)	2.88 (8)	23.38 (4)	25.65 (13)	0.35 (18)	0.25 (21)	65.75 (17)
미국	0.17 (1)	0.25 (1)	2.88 (8)	13.00 (17)	10.40 (19)	0.15 (20)	0.29 (20)	51.50 (22)

주 1) *)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4년치 평균값
2) () 순위

본 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미계통의 국가들은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관련 지수 등이 유럽 대륙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GDP대비 ALMP 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initial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주 관심인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높인 국가인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덴마크의 경우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GDP대비 ALMP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비록 정규직 고용보호법 수준, 임시직 사용 규제 수준, 정리해고관련 지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총고용 중 파트타임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DP대비 ALMP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 등은 덴마크만큼이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유연안정성의 국제비교

이제 유연안정성 지수를 얻기 위해 본 연구는 <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가 하나의 자료를 구성할 때 이들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variation)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자료의 차원(dimensionality of a data set)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변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되 선형전환(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하여 소수의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8개의 변수들로부터 두 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다.

<표 3>은 계산된 두 가지 주성분이 각각의 개별 변수와 가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첫 번째 주성분(PC1)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이 높은 EPL 지수, 파트타임 비중 및 장기실업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반면 두 번째 주성분(PC2)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 및 소득보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1998년의 경우 PC1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나타내며, 반면 PC2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는 1998년의 경우와는 반대로 PC1이 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PC2가 유연성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3, 2005년과 2007년의 경우에는 PC1이 안정성을 나타내며 PC2가 유연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PC1과 PC2는 전체 자료의 변화(variation) 중에서 63~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성분과 개별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 분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PC1	PC2	PC1	PC2	PC1	PC2	PC1	PC2
EPL	정규직	0.62	0.23	0.36	0.63	0.41	0.64	0.40	0.65
	임시직	0.85	-0.15	0.18	0.88	0.19	0.87	0.24	0.86
	집단해고	0.62	0.16	0.51	0.21	0.58	0.09	0.59	0.06
파트타임		-0.58	0.39	0.36	-0.76	0.39	-0.74	0.36	-0.77
장기실업률		0.76	0.20	0.25	0.58	0.49	0.45	0.59	0.31
노동시 장정책	적극적	0.26	0.85	0.95	-0.01	0.92	-0.02	0.88	0.03
	수동적	0.24	0.87	0.89	0.13	0.88	0.18	0.84	0.24
소득보장률		-0.18	0.83	0.85	0.15	0.86	0.07	0.85	-0.08
누적분산		36%	63%	42%	65%	44%	66%	43%	64%

〈표 4〉은 각국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도 지수값과 4년치 평균 값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 유연안정성 지수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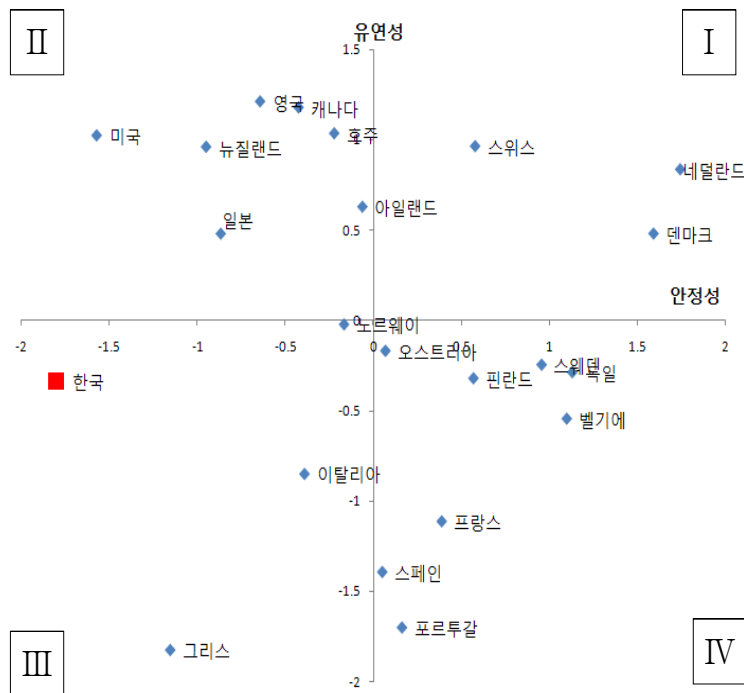
	1998년		2003년		2005년		2007년		평균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노동 유연성	노동 안정성
호주	0.930	-0.013	0.993	-0.265	1.101	-0.232	1.112	-0.394	1.034	-0.226
오스트리아	-0.263	-0.074	-0.195	-0.020	-0.107	0.092	-0.108	0.261	-0.168	0.065
벨기에	-0.980	0.816	-0.425	1.061	-0.385	1.086	-0.383	1.415	-0.543	1.095
캐나다	1.354	0.225	1.185	-0.559	1.111	-0.691	1.058	-0.688	1.177	-0.429
덴마크	0.110	1.654	0.559	1.870	0.628	1.654	0.622	1.171	0.480	1.587
핀란드	-0.170	0.781	-0.294	0.573	-0.403	0.448	-0.413	0.458	-0.320	0.565
프랑스	-0.585	0.252	-1.220	0.438	-1.341	0.349	-1.298	0.498	-1.111	0.384
독일	-0.801	0.705	-0.233	1.288	-0.092	1.243	-0.020	1.267	-0.287	1.126
그리스	-1.642	-1.702	-1.967	-1.031	-1.954	-1.059	-1.725	-0.838	-1.822	-1.158
아일랜드	0.414	0.177	0.607	-0.265	0.685	-0.232	0.806	0.056	0.628	-0.066
이탈리아	-1.630	-1.201	-0.904	-0.459	-0.486	-0.012	-0.376	0.094	-0.849	-0.395
일본	1.150	-0.474	0.285	-1.014	0.230	-0.970	0.252	-1.023	0.479	-0.870
한국	0.373	-1.805	-0.306	-1.795	-0.568	-1.810	-0.832	-1.804	-0.333	-1.803
네덜란드	-0.196	1.557	1.102	1.822	1.132	1.811	1.302	1.765	0.835	1.739
뉴질랜드	1.792	0.314	0.903	-1.112	0.667	-1.371	0.476	-1.645	0.960	-0.953
노르웨이	0.318	-0.227	0.072	-0.011	-0.132	-0.144	-0.345	-0.298	-0.022	-0.170
포르투갈	-1.175	-0.210	-1.741	0.206	-1.926	0.375	-1.949	0.263	-1.698	0.159
스페인	-1.231	-0.282	-1.572	-0.047	-1.360	0.141	-1.401	0.376	-1.391	0.047
스웨덴	-0.542	1.485	-0.148	0.861	-0.148	0.846	-0.142	0.617	-0.245	0.952
스위스	0.623	0.533	0.990	0.537	1.026	0.599	1.214	0.628	0.963	0.574
영국	0.966	-0.955	1.228	-0.575	1.330	-0.506	1.317	-0.551	1.210	-0.647
미국	1.183	-1.556	1.081	-1.503	0.992	-1.617	0.833	-1.628	1.022	-1.576

그리고 <그림 1>은 유연 안정성지수로 4년치 평균 지수값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국가들 간에 일정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앵글로색슨형(또는 영미형)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는 앵글로색슨형 그룹에서 주로 유연성 제고 위주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된 결과일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이 포함된 유럽대륙형 그룹은 앵글로색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은 낮으나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남유럽형 그룹은 유연성 및 안정성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및 스위스를 포함하는 중북부 유럽형(?) 그룹은 유럽대륙형 그룹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하나의 아시아권 그룹(?)으로 명명하기에는 서로 매우 이질적인 유연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앵글로색슨계(고유연성-저안정성)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고용보호법제(EPL)지수가 평균 수준에 머물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반면 실업보험의 소득보장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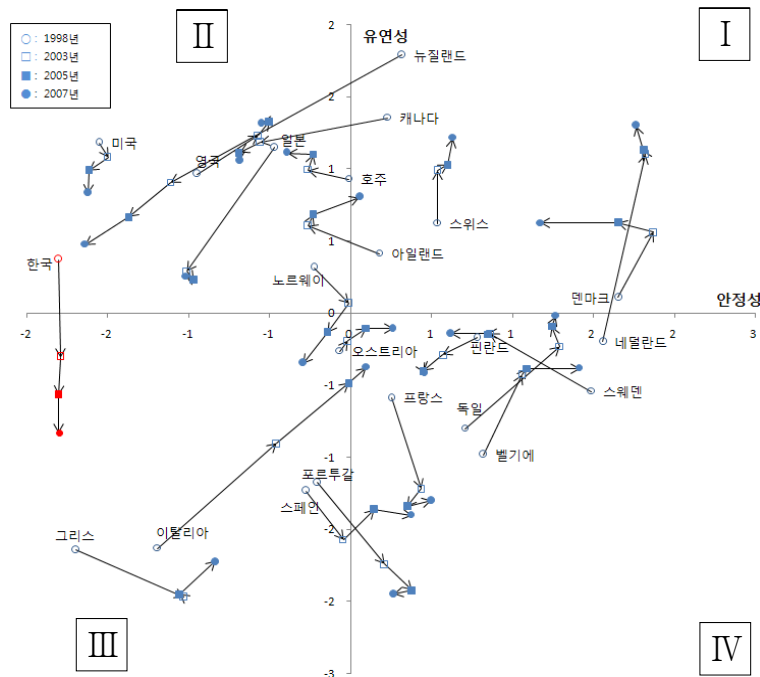


[그림 1] 유연안정성 국제비교

낮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유럽대륙형과 유사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보호 법제(EPL)지수가 일본과 유사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질뿐더러 GDP대비 ALMP비중, GDP대비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비중 및 실업보험의 초기 소득보상률(initial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 등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면 1998년과 2007년 사이 약 10여년간에 각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향상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모두 악화되는 국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유연안정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10여년 간에 유연안정성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유럽형 국가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등의 유럽대륙형 국가들, 그리고 남유럽국 그룹 중 이탈리아가 비약적으로 유연안정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남유럽형 그룹은 유연성이 모두 뒤쳐진 국가들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 안정성을 향상시킨 반면 유연성은 더욱 악화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된 국가들로 유연성 향상을



<그림 2> OECD국가의 유연안정성 변화 추이

위해 안정성을 다소 희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은 모두 유연성과 안정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독 영국만이 유연안정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로 일본은 10년 사이 유연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반면 한국은 유연성만이 더욱 악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⁶⁾

IV. 유연안정화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본 연구의 주제인 유연안정성 정책이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각국의 노사정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으로 기존의 영미형 또는 대륙유럽형 노동시장 전략을 대체할 수 노동 시장 정책인지를 검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유연안정화정책이 영미의 고유연-저안정 정책(이하 '유연화 정책') 또는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

〈표 5〉 기초통계

변수명 국가명	고용률	실업률	지니 계수	빈곤율	Tax wedge	Inflation rate	Union density	1인당 GDP
호주	70.60	5.78	0.30	12.10	33.26	3.15	22.80	31832
오스트리아	69.18	4.60	0.25	7.48	50.90	1.45	34.38	31949
벨기에	59.80	8.38	0.27	9.70	57.30	2.13	53.15	30483
캐나다	71.80	7.18	0.31	10.95	36.69	2.35	30.15	32575
덴마크	75.80	4.73	0.22	5.10	46.21	1.93	72.18	31436
핀란드	67.93	8.95	0.26	6.48	50.12	1.58	73.40	28946
프랑스	62.48	9.40	0.28	7.23	50.13	1.83	8.13	28164
독일	65.95	9.33	0.28	9.93	52.74	1.10	22.60	29652
그리스	59.08	9.75	0.32	13.15	42.99	3.80	21.55	23110
아일랜드	65.15	5.35	0.31	14.00	35.25	3.20	36.33	35547
이탈리아	56.15	8.45	0.35	12.20	48.33	2.53	34.08	27346
일본	69.48	4.43	0.32	14.70	28.30	-0.03	19.83	28851
한국	62.45	4.38	0.30	14.60	20.04	2.38	10.53	19704
네덜란드	71.63	3.85	0.27	7.13	42.97	2.00	21.63	32885
뉴질랜드	73.03	4.83	0.33	9.95	24.89	2.78	22.03	23564
노르웨이	76.70	3.73	0.27	6.75	43.23	3.28	54.80	41633
포르투갈	67.30	6.80	0.36	13.53	38.63	3.13	19.43	19362
스페인	61.00	10.90	0.29	13.43	38.54	3.53	15.43	25655
스웨덴	73.85	6.83	0.23	4.90	50.29	1.58	76.65	30812
스위스	77.93	3.95	0.27	8.10	31.68	0.80	20.03	35073
영국	72.13	5.30	0.34	9.43	34.72	2.60	29.03	30385
미국	72.08	5.05	0.36	17.00	30.55	2.30	12.35	39045

6) 안정성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음.

정 정책(이하 ‘안정화 정책’)에 비해 노동시장의 성과가 우수한 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계량 분석을 통하여 유연안정성 정책이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성과를 높이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 기술적 분석

유연안정화 정책이 유연화 정책 및 안정화 정책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더 나은 지를 보기 위해 먼저 각 국가의 노동시장을 그룹화 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미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형 그룹(flexicurity)으로, (II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유연형그룹(flexibility)으로, (III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안정형그룹(security)으로 그리고 (IV 구간)에 속한 국가들은 유연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는 그룹(rigidity)으로 나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다.

<표 6>는 이들 그룹간의 노동시장의 성과라 볼 수 있는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및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연화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 안정화 그룹에 속한 국가들 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연화 그룹의 국가들은 안정화 그룹의 국가들에 비해 고용률은 높은 반면 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 및 빈곤율에서는 반대로 안정화 그룹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화 그룹과 안정화 그룹 간에 어느 그룹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유연안정형 그룹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유연화 그룹보다 높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지니계수 및 빈곤율에서도 안정형 그룹보다 낮게 나타나 유연안정형 그룹이 이들 두 그룹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그룹별 노동시장 성과 비교

	employment rate (%)					unemployment rate (%)				
	1998	2003	2005	2007	평균	1998	2003	2005	2007	평균
flexicurity	70.28	74.93	74.60	74.75	73.27	6.34	4.47	4.63	3.83	4.95
flexibility	69.95	70.95	71.31	72.78	71.23	5.43	5.45	4.90	4.63	5.12
security	64.53	66.08	66.56	67.26	66.26	8.78	7.93	8.28	7.14	7.96
rigidity	58.96	61.54	64.18	67.63	62.48	9.40	7.44	6.48	4.70	7.31

	Gini coefficient					poverty rate				
	1998	2003	2005	2007	평균	1998	2003	2005	2007	평균
flexicurity	0.28	0.26	0.26	0.27	0.27	8.22	6.47	7.23	9.13	7.91
flexibility	0.30	0.32	0.33	0.33	0.32	12.40	12.08	12.90	12.58	12.47
security	0.26	0.28	0.29	0.29	0.28	6.95	8.70	9.14	9.39	8.67
rigidity	0.30	0.30	0.31	0.30	0.30	12.38	12.58	11.35	11.33	12.01

2. 계량분석

이와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안정형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유연형 그룹 국가들이나 안정형 그룹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면 타 국가들도 이들 국가들과 같이 유연안정화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유연안정화정책이 이들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재적인 특수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내재적 특수성이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과연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 국가들이 공유할만한 정책인 지를 가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fixed effect model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인 관계로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면 개별 국가의 특이성(country heterogeneity)를 통제하여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Y_{it} = \beta_0 + \beta_1 F_{it} + \beta_2 S_{it} + X_{it}\beta + \epsilon_{it} \quad (1)$$

$$\epsilon_{it} = a_i + e_{it}$$

i : OECD 22개 국가

t : 1998년도,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Y_{it} : 고용률, 실업률, 소득 불평등 정도(Gini 계수, poverty rate)

F_{it} :유연화 지수

S_{it} :안정화 지수

X_{it} : 노조 조직률, labor tax wedge, inflation rate, 1인당 실질 GDP

식(1)은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β_1, β_2 두 값의 합이다.

$$Y_{it} = \beta_0 + \beta_1 F_{it} + X_{it} \beta + \epsilon_{it} \tag{2}$$

$$\epsilon_{it} = a_i + e_{it}$$

식(2)는 유연화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β_1 값이고⁷⁾.

$$Y_{it} = \beta_0 + \beta_2 S_{it} + X_{it} \beta + \epsilon_{it} \tag{3}$$

$$\epsilon_{it} = a_i + e_{it}$$

마찬가지로 식(3)은 안정화 정책의 효과만을 보기 위한 것으로 β_2 값이다.

〈표 7〉은 유연안정화(flexicurity)정책($\beta_1 + \beta_2$)을 OECD 22개국 전체가 채택했을 경우, 유연화(flexibility)정책(β_1)을 채택했을 경우 그리고 안정화(security)정책(β_2)을 채택했을 경우의 노동시장 성과 -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그리고 빈곤율 -에 미치는 값을 표시한 것이다.

〈표 7〉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 노동시장 성과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유연안정화	3.526	-0.787	-0.015	-2.233
유연화	2.493	-0.756	-0.001	-1.108
안정화	1.966	-0.228	-0.018	-1.742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연안정화 정책이 고용률에 있어서 유럽대륙식의 안정화 정책은 물론 영미식의 유연화 정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에 있어서도 영미식과 유럽대륙식보다도 월등 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의 형평성의 지표인 지니계수에 있어서 유연안정화 정책이 안정화 정책에 다소 떨어지지만 빈곤율 측면을 보면 그 감소율이 다른 두 정책보다 성과가 우수함을 볼 수 있다⁹⁾. 따라서 유연안정화 정책은 일부 북유럽국가에서

7) OECD 모든 국가 나름대로 유연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미식의 유연화 정책 효과를 살펴기 위해 식(2)에서 유연화 변수만으로 단순화 하였다.

8) 식 1), 식 2) 및 식 3)의 계량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수록 됨.

9) 보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조세 부담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부록 2에서 보듯이 조세부담률이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견 안정성과 조세부담률의 함은 모두 안정성 추구의 효과로 보더라도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OECD 22개국의 노동시장에도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중북부 유럽국가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OECD 22개국에 유연안정화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면 유연안정화 정책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노사정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보편적 노동 정책으로서 앵글로 색슨계의 고유연-저안정화 정책 및 유럽대륙의 저유연-고안정화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성과 즉 고용을 제고, 실업을 감소 그리고 빈곤율의 감소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노동유연안정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이 공유할 만한 노동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국가들이 공유할 만한 정책이고 따라서 2005년 유럽 커미션(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으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안정화 정책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OECD국가들은 노동의 유연화 및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정책을 조합하고 있다. 단지 문제는 국가들마다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 구조 차이로 인해 북유럽의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을 이식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설사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북유럽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해석에 유의할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연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를 OECD국가들의 공통된 8개의 정책변수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정책변수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다른 정책변수들이 사용된다면 각 국가의 유연안정화 지표가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각 국가들마다 나름대로의 토양에 맞게 노동 정책이 있을 것인데 그 정책이 OECD 공통된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가들간의 유연안정화 정도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국가의 이질성(country heterogeneity)을 제거하기 위해 fixed effect model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계량 분석 시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실제 노동시장의 성과는 노동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차이는 물론 각 국가의 경제 구조 및 거시 경제 정책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관찰되지 않는 국가의 이질성(unobservable country heterogeneity)으로 보고 fixed effect model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참고문헌 ||

- 박성준, 변양규, 정현용(2008),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윤진호(2009),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평가 및 도입조건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정원호(2005a),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3-12 (2005. 12),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5b),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EU학연구』, 한국EU회.
- 정희정(2007a),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5-9 (2007. 9.),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7b),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전략: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공동 원칙을 향하여: 네덜란드」, 『국제노동브리프』, 5-7 (2007. 7.),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8),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6-3 (2008. 3.),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형」, 『World Labor』, 2-6 (2004. 6.), 한국노동연구원
- Abrahamson, P. and W. v. Oorschot(2003), "The Dutch and Danish Miracles Revisited: A Critical Discussion of Activation Policies in Two Small Welfare State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7-3.
- Andersen, T. M. and M. Svarer(2007), "Flexicurity: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Denmark," *CESifo Economic Studies*, 53-3.
- Becker, U. and H. Schwartz(eds.)(2005), *Employment 'Miracles':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tch, Scandinavian, Australian and Irish Cases versus Germany and the U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Bradley, D. and Stephens, J. D.(2007), "Employment Performances in OECD Countries: A Test of Neo-liberal and Institutional Hypothe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 (12): 1-25.
- Bredgaard, T., F. Larsen, and P. K. Madsen(2005), "The Flexible Danish Labour Market--A Review," CARMA Research Papers 1:2005, Aalborg Universitet.
- _____, P. K. Madsen, and S. Rasmussen(2009), "Flexicurity and Atypical Employment in

- Denmark,” CARMA (Centre for Labour Market Research) Research Paper 2009:01.
- Cohn, J.(2007), “Denmark, the Model,” *New Republic*, January 15.
- EIRO(2009), *Denmark: Industrial Relations Profile*, Eurofound.
- Eriksson, T. and N. Westergaard-Nielsen(2007), “Wage and Labor Mobility in Denmark, 1980-2000,” NBER Working Paper No. 13064, April.
- European Commission(2005), “2005 Adopted Employment Guidelines 2005-2008”,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European Commission.
- _____ (2006), “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s: Legal Situ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April.
- Fre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2007), “Flexicurity: A Modern Danish Fairy-Tale: How in the Country of the Blind the One-eyed Man Became King?”
- _____ (2008), “The Myth of the Scandinavian Model”
- Gaard, S. and M. Kieler(2005), “Two Decades of Structural Reform in Denmark: A Review,” Working Paper No. 16,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Denmark.
- Goul Andersen, J, and J. B. Jensen(2002), “Different Routes to Improve Employment in Europe,” in H. Safarri and G. Bonoli (eds.),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Reform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Asgate.
- Green-Pedersen, C. and A. Lindbom(2005),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Denmark and Sweden: Success or Failure for the Universal Welfare Model?,” in Becker and Schwartz(2005).
- Hall, P. A. (2006), “Danish Capit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J. L. Campbell et al, (eds.) (2006).
- Heckman, J. and C. Pages(2000), “The Cost of Job Security Regul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n Labor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 7773
- Jespersen, S., J. R. Munch, and L. Skipper(2008), “Costs and Benefits of Danish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Labor Economics*, 15-5, October.
- Keune, M.(2008), “Flexicurity: a Contested Concept at the Core of the European Labour Market Debate,”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3-2, Mar.-Apr.
- Kim, Hyungkee(2008), “Labor Market Institu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 Germany, and Denmark”, Labor Policies Studies,

- Vol, 8 No 3 pp93-124(in Korean)
- _____ (2009), “Economic Performance in Three Labor Market Models: Elexibility, Rigidity, and Flexicurity,” 2009년 하계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
- Larsen, C. A.(2001), “Employment Miracles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A Critical Review of Danish Evaluations,” *Journal*
- Madsen, P. K.(2006a), “Flexicurity: A, “FlPerspective on Labour Markets and Welfare States in Europe,” Background Paper for Presentation at the DG EMPL Seminar on Flexicurity, Brussels, May 18.
- _____ (2006b), “How Can It Possibly Fly?: The Paradox of a Dynamic Labour Market in a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Campbell, J. L., J. A. Hall, and O. K. Pedersen,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DJØF Publishing, 2006
- Madsen, P. T.(2008), “The Most Quoted Danish Economic Expert and the Welfare State: Bias in Practice,” What is 'Welfare'? Winter Symposium Study Circle 1 under Nordisk Sommeruniversitet (NSU), Bergen, Norge, September 6.
- Mailand, M.(2009), “Corporatism in Denmark and Norway: Yet Another Century of Scandinavian Corporatism?,” Contribution to Special Issue on the Nordic Countries of “WSI Mitteilungen- Monatszeitschrift des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s in der Hans-Böckler-Stiftung”,
- Nickell, S.(1997),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3, Summer, pp.55-74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
- _____ (2007), *Benefits and Wages*, OECD.
- _____ (2008), *Economic Survey of Denmark*, OECD.
- _____ (2009a),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OECD.
- _____ (2009c), OECD.Stat Extracts.
- _____ (2004),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 Tangian, A. S.(2004a), “Defining the Flexicurity Index in Application to European Countries,” *Diskussionpapier Nr. 122*, April.
- _____ (2004b), “Liberal and Trade-unionist Concepts of Flexicurity: Modelling in Application to 16 European Countries,” *WSI-Diskussionspapier Nr. 131*, WSI in der

- Hans Böckler Stiftung, October.
- _____ (2006), "European Flexicurity: Concepts (Operational Definitions), Methodology (Monitoring Instruments), and Policies (Consistent Implementations)," WSI-Diskussionspapier Nr. 148, WSI in der Hans Böckler Stiftung, October.
- _____ (2007), "European Flexicurity: Concepts, Methodology, and Policies," *Transfer*, 13-4, Winter.
- Tros, F. (2004), "Towards "Flexicurity" in Policies for Older Workers in EU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IREC Conference, Utrecht, 26-28 August.
- Vandenberg, P. (2008), "Is Asia Adopting Flexicurity? A Survey of Employment Policies in Six Countries," Economic and Labour Market Paper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Wilthagen, T. and F. Tros (2004),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fer*, 10-2, 2004.

〈부록 1〉 계량분석 데이터 변수 설명

변 수	설 명
고용율	Share of persons of working age (15 to 64 years) in employment
실업율	As a percentage of civilian labour force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after taxes and transfers) Current definition
빈곤율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50 percent of the current median income Current definition
tax wedge	As percentage of labour costs Figures of the average worker single without children
inflation rate	Real GDP growth Annual growth in percentage
union density	Trade Union Density
1인당 GDP	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부록 2〉 모델의 회귀계수 값

1. 유연안정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flexibility	2.076**	-0.744**	0.004	-0.653*
security	1.450**	-0.043	-0.019***	-1.580***
tax wedge	-0.244**	0.099**	0.0004	-0.058
inflation	-0.472	0.198	0.004*	0.013
union density	0.083**	-0.018	-0.00078***	-0.058***
GDP per capita	0.00026**	-0.00007	-0.0000007	0.00004
intercept	68.737***	4.522**	0.327***	12.957***
R-square	0.597	0.497	0.573	0.627

주 : *($\alpha = 0.1$), **($\alpha = 0.05$),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

2. 유연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flexibility	2.493***	-0.756**	-0.001	-1.108**
tax wedge	-0.155**	0.096***	-0.0007*	-0.155***
inflation	-0.549*	0.201	0.005**	0.097
union density	0.094**	-0.018	-0.0009***	-0.070***
GDP per capita	0.0002**	-0.00007	-0.0000005	0.00006
intercept	65.819***	4.609**	0.365***	16.137***
R-square	0.570	0.497	0.461	0.525

주 : *($\alpha = 0.1$), **($\alpha = 0.05$),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

3. 안정화 정책

	고용률	실업률	지니계수	빈곤율
security	1.966**	-0.228	-0.018***	-1.742***
tax wedge	-0.374***	0.145***	0.0001	-0.018
inflation	-0.616**	0.250*	0.003*	0.058
union density	0.093**	-0.022*	-0.0008***	-0.061***
GDP per capita	0.0004***	-0.0001**	-0.0000003	-0.00002
intercept	67.204***	5.072**	0.324***	13.440***
R-square	0.550	0.459	0.568	0.612

주 : *($\alpha = 0.1$), **($\alpha = 0.05$), ***($\alpha = 0.001$) 의미에서 유의하다는 의미.